



## 지역별 학교자율시간 안내 자료 분석 및 개선 방안 탐색\*

김미진<sup>1</sup>, 지혜영<sup>2</sup>

### 《요약》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개별 학교에서 선택 과목을 개발하고 개설할 수 있는 학교자율시간이 새롭게 도입되었고, 지역별로 학교자율시간 관련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교육청이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학교에서 학교자율시간 관련 의사결정 및 실행 과정을 기반으로 분석 기준을 개발하여 6개 지역의 학교자율시간 안내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학교자율시간의 토대와 편성·운영, 개설 과목 신청서 양식 등 모든 지역에서 갖추고 있는 항목이 있었던 반면, 가용 자원 확인, 평가와 기록, 선택 과목 개발 절차 등 필수 안내 항목이 결여된 경우도 있었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학교자율시간 관련 의사결정의 모든 단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택 과목 개발 및 선정에 관한 자세한 절차와 설명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자율시간 개설 과목의 편성과 시수 배정에 관한 교원 협의에 관한 지원 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교의 실제 운영 현황과 교원의 의견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반영, 개선이 요구된다.

**주제어** : 학교자율시간, 학교자율시간 안내자료, 지역 교육과정, 교육과정 지역화, 교육과정 자율화

\*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수행된 「2022 개정 교육과정 기반 지역특화 충청북도교육과정 발전방향 연구」(제2024-41호)의 일부를 발췌, 수정하였음.

1. 대구대학교 겸임교수, 0123kimm@gmail.com (주저자)  
2.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yeong@korea.ac.kr (교신저자)

## I. 서론

저출산, 수도권 집중, 지역 소멸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당면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실사용 주체들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지역화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에서 ‘설계’로 그 역할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정책으로 학교자율시간이 신설되었다. 학교자율시간에서는 ‘지역의 자원’과 ‘학생의 요구’에 따라 학교에서 선택 과목을 신설할 수 있으며, 학교와 교사에게는 교육과정 운영을 넘어 ‘개발’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강조되면서 지역 간 차이가 교육의 질적 격차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김미진, 2024)와 지역 교육청의 역할은 국가 수준의 지침을 학교가 처한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교육부, 2022b: 120; 이승미, 2024) 지역에서 학교자율시간에 관해 안내하고 지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지에 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요구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고시 외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자율성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보다 확대되어 초등학교에서도 학교자율시간을 통해 과목을 개발하고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교육부, 2022b: 75). 학교자율시간은 지역과 학교, 교사가 교육과정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주요한 통로가 되며, 주어진 교육과정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전환하는 핵심적인 교육과정 정책이다(서울시 교육청, 2023: 12). 학교 교육과정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작용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자, 외부에서 주어진 교육과정의 실행으로부터 교사가 교육과정 개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교육부, 2022b: 88).

교육과정의 결정과 실행에서 국가의 역할보다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데 비해, 학교 현장의 준비는 다소 미흡한 상태이며, 타율적 자율성과 자율성에 따른 책무성 강화는 현장 교사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한다(김미진·홍후조, 2023). 학교자율시간의 취지가 개별 학교 맞춤형 과목 편성·운영임을 고려할 때 학교와 교사가 교육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은 결국 지역 교육청에서 수행해야 한다. 또한 고시 외 과목을 학교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교육부, 2022b: 75) 이에 대해 학교자율시간을 실제로 행할 학교와 교사에게 명료하고 자세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시·도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단위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예시자료를 개발·보급할 의무가 있고(교육부, 2022b: 120) 지역의 안내 자료는 학교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 교과서 및 교재의 선정 및 개발에 대한 지원의 역할을 하므로

(김미진·김덕희, 2024) 학교자율시간에 관해서도 지역별로 학교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안내 자료를 발간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자율시간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포함하여 학교에서 거치는 학교자율시간 관련 모든 의사결정 단계에 대해 분명하고 상세한 정보 및 예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별 학교자율시간 안내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교육과정 지역화와 자율화 과정 속에서 학교자율시간의 취지와 의도를 탐색하고, 학교자율시간에 관한 지역의 안내 자료가 중요한 연유와 지역 안내 자료가 갖추어야 할 필요 요건을 도출한다. III장에서는 지역별 학교자율시간 관련 안내 자료를 수집, 분석의 기준을 수립하며, IV장에서는 준거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V장에서 학교자율시간 안내 자료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질 높고 학교에 도움이 되는 지역 안내 자료로 개선함으로써 국가 교육과정에서 의도하는 학교자율시간의 취지를 구현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육 목적의 달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II.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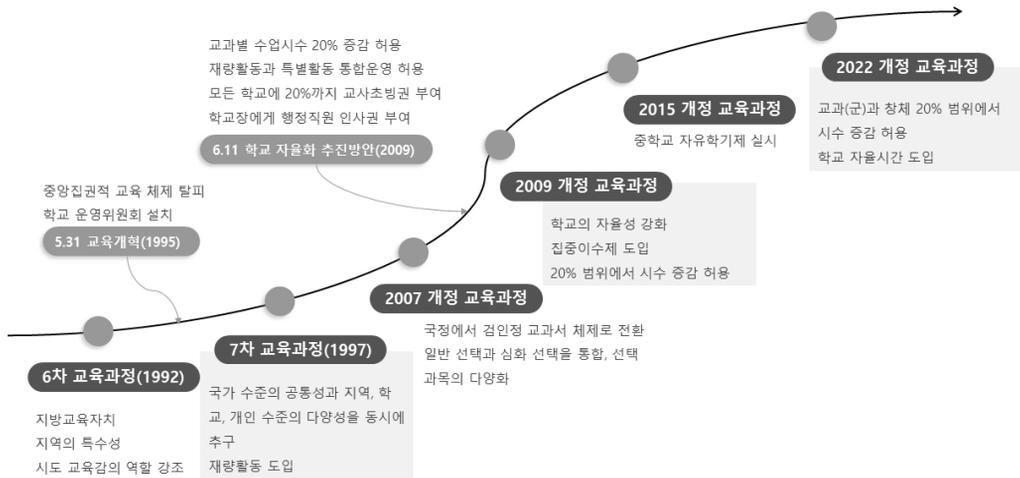
### 1. 교육과정 지역화의 과정과 과제

우리나라는 미 군정기 이래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과 정책을 전개하여 왔으며, 국가 교육과정의 실행으로 인한 일괄적이고 맥락 배제적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6차 교육과정 및 1995년 5.31 교육개혁을 기점으로 교육과정 의사결정의 지역화와 분권화, 자율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김미진·홍후조, 2023; 한진호, 2024).

1991년 지방 교육 자치와 학교단위 책임 경영을 강조하면서 지역과 학교로의 교육 분권화가 시작되었고 이를 반영한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 4학년 사회과 지역화 교과서를 개발하고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개발, 보급하였다(박순경, 2010). 7차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재량 활동 등 교과 외 활동에서 지역과 학교의 재량권을 확대하였고(이승미 외, 2021: 25), 이후 교과 외 활동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는 주요한 통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006년 12월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0년 지방 선거를 통해 시도 교육감을 선출하였다. 2007년 4월 13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권한을 16개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학교 자율화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4. 15). 이는 교육과정 분권화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하며, 이러한 큰 흐름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자치에 따른 교육과정 지역화 및 자율화를 대폭 확대하여 교과(군)별 시수 증감을 허용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유학기제 도입 등을 통해 자율화, 지역화의 여지를 주었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지역별 편성·운영 지침’에 ‘○○(지역)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을 붙이기 시작하였다(이승미 외, 37).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경기도는 학교자율과정, 충청북도는 자율탐구과정, 전라북도는 학교교과목, 경상북도는 학생생성 교육과정 등이 그 예이다(김미진·홍후조, 2023). 특히 2019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전라북도 학교교과목은 교사가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현 교과보다 역동적, 순환적 교육이 가능하였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자율시간 도입의 토대가 되었다(김세영·이윤미, 2020).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학교자율시간을 통해 시·도 교육감이 허가하는 선택 과목 개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가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별 편성·운영 지침도 새로이 개발되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김미진·김덕희, 2024).



[그림 1] 지역에 대한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과정(김미진·홍후조, 2023)

교육과정 자율화, 지역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교육과정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지역에서 안내하는 교육과정 관련 지침들이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기보다는 국가와 지역 간, 지역들 간 차이 없이 대동소이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타율적 자율성으로 인하여 교육과정 실천의 주체인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제6차 교육과정에서 이어져 온 지역 교육과정(편성·운영 지침)은 제6차(김재복, 1996), 제7차(박순경, 2003), 2007 개정(김평국, 2009), 2009 개정(박순경, 2010), 2015 개정 교육과정(이승미 외, 2021)의 매 단계마다 공통적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가 교육과정을 반복, 요약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 실행 주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교육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에 의한 ‘수단적 자율성’임에도 불구하고(김미진·홍후조, 2023), 교육과정 지역화가 실제적으로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과정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지에 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 2.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자율시간

2022 개정 교육과정은 4차 산업혁명과 COVID-19의 사회적 여파를 배경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 구조 및 사회의 변화와 감염병의 확산, 기후환경의 변화 등 예측 불가능한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 역량과 변화 대응력을 키워주는 교육 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지식과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단편적 지식의 습득보다는 학습한 내용을 삶의 맥락에서 적용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중요해졌으며,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김미진, 박상우, 2023).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역과 학교의 교육과정 분권화와 자율화를 대폭 확대하였는데 이는 개정의 중점 추진 과제에서 잘 드러난다.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는 학교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었고, 구체적으로는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초·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었다(교육부, 2021: 9).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한 근거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과 다양한 수업 혁신에 대한 기대였다(교육부, 2021: 19). 이를 위해 기존 교과만 20% 내 시수 증감이 가능했던 것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확대하였고, 초·중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총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개선하였고 연간 34주 기준 1주의 시간을 학교자율시간으로 확보하여 학교장 개설과목, 지역 연계 특색 프로그램,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 등을 운영하도록 하였다(교육부, 2021: 19).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학교자율시간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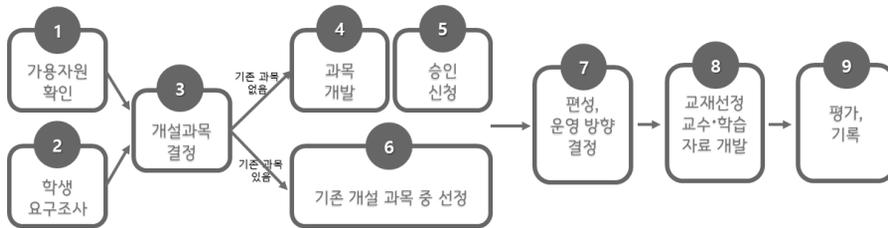
〈표 1〉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자율시간 관련 내용

항목	내용
기본 사항	파. <b>시·도 교육청과 학교</b> 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b>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b> 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초등학교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3) 학교는 3~6학년별로 지역과 연계하거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자율시간을 편성·운영한다. 가)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하여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 외에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b>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b> 에 따라 <b>사전에 필요한 절차</b> 를 거쳐야 한다. 나) 학교자율시간에 운영하는 과목과 활동의 내용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b>학교가 결정</b> 하되, 다양한 과목과 활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다) 학교자율시간은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의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3. 중학교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3) 학교는 지역과 연계하거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자율시간을 편성·운영한다. 가)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하여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목 외에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나) 학교자율시간에 개설되는 과목의 내용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b>학교가 결정</b> 하되, <b>학생의 선택권</b> 을 고려하여 다양한 과목을 개설·운영한다. 다) 학교자율시간은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의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학교자율시간 지침은 학교급별로 상이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 차이가 있는 항목은 가)항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개설할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중학교에는 빠져 있다. 다만 기본사항 파 항에 의거,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학교장과 교사의 역량과 성향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율시간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김미진·홍후조, 2023).

국가 교육과정 총론에 따르면 학교자율시간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필요와 교육적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에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때 고시 외 과목의 개발과 개설의 주체는 ‘학교’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 수준의 지침을 지역의 수준에서 상세화하는 과정에서 지역 교육과정은 지역의 특수성을 ‘안내’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방안 및 정책을 소개하며, 궁극적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김미진·김덕희, 2024). 따라서 각 지역에서는 학교자율시간 선택 과목을 개발하고 개설하는 기반으로서의 ‘지역의 여건’과 신설 과목의 개발 및 승인에 대하여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절차’를 명료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에서 학교자율시간에 관한 의사결정 및 실행 과정에 따른 아래 그림의 각 단계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의 학교자율시간 안내 자료에는 단계별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학교자율시간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문서 진술을 명료화하고 사용자의 충분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한진호, 2024).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의 과목과 활동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절차를 시·도 교육청에서 안내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며, 문헌 분석 및 학교자율시간 지침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학교자율시간 관련 의사결정 및 실행 과정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2] 학교자율시간 관련 의사결정 및 실행 과정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가용자원을 확인하고 학생의 요구를 조사, 학교 교육 공동체 협의를 통해 개설 과목을 결정한 후, 기존 개설 과목 유무에 따라 과목을 개발 혹은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며, 과목이 결정되면 교육과정의 편성 방향을 결정한다. 선택 과목에 따른 교재를 선정하거나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수업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교육과정 운영 후에는 평가와 학생생활기록부에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와 필요한 내용들을 시·도별로 안내 자료를 통해 학교에 제공하게 되고, 학교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안내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명료성, 가독성, 유용성, 자율성(이병호, 2009; 이승미, 2013)이 충족되어야 한다. 국가 수준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은 명료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교사가 읽고 이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가독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안내 자료에 담긴 내용들이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계획과 실행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고,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관련 의사결정에 자율성을 발휘할 여지를 제공하여야 한다(김미진, 홍후조, 2023). 이와 같은 준거와 관점을 토대로 현재 발간된 지역별 학교자율시간 안내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교자율시간 안내 자료의 보완 사항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Ⅲ. 연구의 방법

#### 1. 연구의 대상

연구를 위하여 지역별로 개발·고시된 학교자율시간 안내 자료를 수집하였다. 17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학교자율시간’을 검색하였고, 하나의 문서로 제시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에서의 학교자율시간 과목 및 활동 운영 자료를 중심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자료 목록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지역별 학교자율시간 안내 자료 발간 목록

지역	지침의 제목	고시
충청북도	2024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도움자료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학교자율시간 운영 매뉴얼	충북-2024-34
서울특별시	2022 개정 교육과정 대비 학교자율시간 운영·지원 도움자료	
경기도	중학교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학교자율시간	
울산광역시	2024학년도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운영 도움자료	울산교육 2024-67호
경상남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운영 길라잡이	경남교육 2024-112
전라북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 참고자료	전북교육 2024-212

#### 2. 분석 기준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지역별 안내 자료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분석 기준을 설정하였다. 학교자율시간 안내 자료는 학교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관점에서(한진호, 2024) 앞서 II장에서 제시한 ‘학교자율시간 관련 학교의 의사결정 및 실행 과정’의 모든 단계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승미(2013)은 교육과정 자율화에 따른 교육과정 문서 체제가 접근성, 가독성, 명료성, 활용성을 띠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자율성 항목을 추가하여 준거를 설정하였다. 이에 ‘학교자율시간 관련 의사결정 및 실행 과정’을 기반으로 분석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각 기준의 세부 내용과 강조되는 준거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 분석 기준

분석 코드	단계	내용	강조되는 증거			
			명료성	가독성	유용성	자율성
1	학교자율시간에 관한 토대 형성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 ○ 학교자율시간의 개념과 취지		✓		
2	가용자원 확인	○ 연계할 수 있는 지역 자원 확인 ○ 학교의 시설, 물품, 재료 확인 ○ 교원 현황 확인				✓
3	학생 요구조사	○ 학생의 진로에 따른 개설 희망 과목 조사 ○ 학생의 필요에 따른 개설 과목 조사				✓
4	선택과목 개발	○ 선택 과목의 유형 확인 ○ 선택 과목 개발 절차 및 절차별 수행 과업	✓			
5	개발 과목 승인 신청	○ 교육청별 신청 및 승인 절차 ○ 나이스 과목 등록 절차	✓			
6	기존 개설 과목 중 선정	○ 기존 개설 과목의 목록 및 개요			✓	
7	편성, 운영	○ 관련 교과(군) 설정 ○ 시수 조정 방안 ○ 운영 방법 결정	✓			
8	교재 선정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 인정 도서 승인 절차 ○ 교수·학습 자료 개발 ○ 교수·학습 자료 예시	✓			✓
9	평가, 기록	○ 선택과목 평가 방법 ○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방법			✓	
10	의사결정 과정 전반	○ 학교자율시간 운영 1년 로드맵 ○ 3개년 교육과정 편성표 ○ Q&A	✓	✓		

#### IV. 연구의 결과

교육과정이 학생들에게 유의미하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인 학교, 교사 수준에서 적극적인 재구성이 요구되며, 지역화, 자율화, 분권화는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결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학교자율시간은 학교가 주어진 교육과정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가 만들어가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과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한다(이승미, 2024). 본 연구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자율시간 관련 의사결정 및 실행 단계에 따른 분석 기준을 토대로 지역별 학교자율시간 안내 자료를 분석하였다.

〈표 4〉 지역별 학교자율시간 안내 자료 분석 결과

학교자율시간 안내자료의 내용		분석코드	충북	서울	경기도	울산	경남	전북
토대	1. 2022 개정 교육과정	1	○	○	○	○	○	○
	2. 학교자율시간의 이해	1	○	○	○	○	○	○
실제	1. 로드맵	10		○	○	○		
	2. 편성·운영	7	○	○	○	○	○	○
	3. 선택 과목 개발 절차	4		○			○	
	4. 유형별 예시	4	○	○	○	○	○	○
	5. 평가와 기록	9		○				○
	6. 교육과정 편성표 예시	7	○					○
부록	1. 학교장 개설 과목 승인 신청 안내	5	○	○			○	○
	2. 신청서 양식	5	○	○	○	○	○	○
	3. 인정도서 사용 안내	8	○			○	○	○
	4. 설문지 예시	3	○	○			○	
	5. 시·도별 개설 과목 목록	6	○	○	○			
	6. Q&A	10		○			○	
	7. 신설과목 자체점검표	4				○	○	○

지역별 학교자율시간 안내 자료에는 공통적으로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토대 형성(1)’ 및 ‘선택 과목 개발(4)’, ‘개발 과목 승인 신청(5)’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용 자원 확인(2)’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지역은 없었고, 그 외 항목들은 교육청마다 안내 여부가 달랐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학교자율시간 관련 내용 및 해설인 ‘분석코드 1’과 제시된 사례가 없는 ‘분석코드 2’를 제외하고 ‘분석코드 3~10’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1. 학생 요구조사

학생 대상 요구조사를 위한 설문지 예시를 제시한 지역은 충청북도, 서울시, 경상남도 등의 세 교육청이었다. 충청북도의 경우 <부록>에서 가정통신문 양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학교자율시간에 관한 안내와 함께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선택주제 목록 가운데 10개의 주제 중 희망하

는 3개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충청북도 교육청, 2024: 44-45).

서울시에서는 본문의 학교자율시간 운영 준비를 위한 로드맵(서울시 교육청, 2023: 24) 가운데 ‘과목 개발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공동 협의’ 항목에서 교원,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요구 조사를 위한 교원용, 학생용, 학부모용의 세 가지 설문지 예시를 <부록>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자율시간에 운영할 수 있는 10개의 특색 교육 주제 중 3개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서울시 교육청, 2023: 83-85).

경상남도는 학교자율시간 과목 개발 후 교수·학습 자료 및 교재 개발을 위한 선행 작업 단계에서 학교 교육 공동체의 합의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경상남도 교육청, 2024: 34). <부록>에서는 수요 조사를 위한 가정통신문을 예시하고 있는데, 희망하는 개설 과목을 7가지 가운데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경상남도 교육청, 2024: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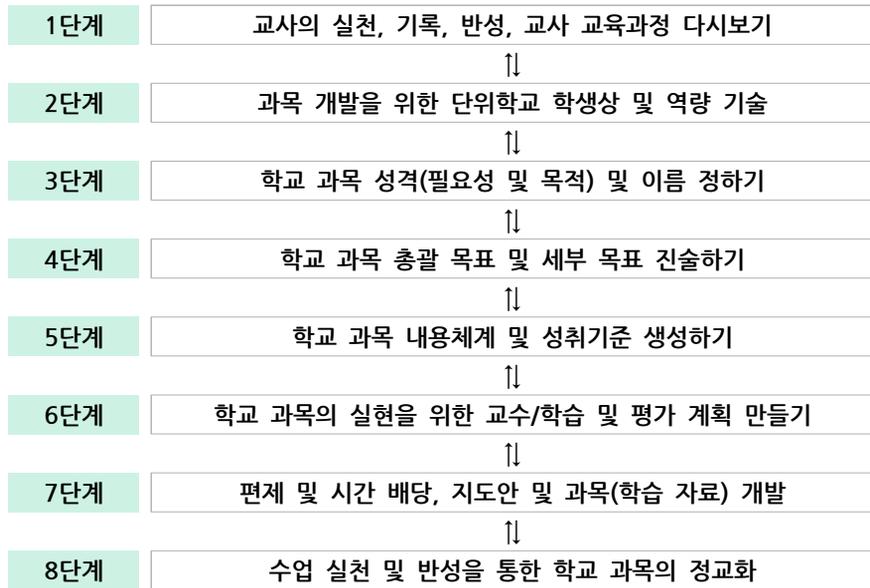
**<표 5> 학생 요구 조사 과목 주제 예시**

지역	주제 예시											계
	인성	고전과 소통 (독서)	생태전환	디지털	우리마을 탐구	몸 활동	진로	문해력	사회적 경제	민주 시민		
충북	인성	고전과 소통 (독서)	생태전환	디지털	우리마을 탐구	몸 활동	진로	문해력	사회적 경제	민주 시민		10
서울	인성	독서·토론· 글쓰기	생태전환	지능정보		예술 안전· 건강	진로	기초소양	역사·통일	민주 시민		10
경남	인성	인문학	환경	미래	지역 연계	예술 체육	진로·직업					7

## 2. 학교자율시간 선택과목 개발

### 가. 선택과목 개발 절차

학교자율시간에서 운영할 선택과목 개발 절차를 안내하는 시·도는 서울시 교육청과 경상남도 교육청 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교원학습공동체를 구성, 교원 협의를 통한 과목 개발 과정을 예시하고 있다. 학교자율시간 운영의 사전 준비 단계에서 교원학습공동체와 같은 교육과정 연구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구와 성찰, 연수 등의 과정을 통해 과목 개발 역량을 키우고, 이를 토대로 선택과목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안내하였다. 신설과목 개발의 과정을 연구학교 사례를 통해 예시하고 있는데, 과목을 개발하기 위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실천, 성찰하는 과정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8단계의 과목 개발 절차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서울시 교육청, 2023: 29).



[그림 3] 과목 개발 절차(서울시 교육청, 2023: 29)

서울시 교육청의 과목 개발 절차 모형을 도출했던 연구학교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초기 단계부터 신설 교육과정의 개발과 학생용 워크북 개발 단계에 이르기까지 매달 전체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1~2회씩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하여 교원 협의를 통해 과목을 개발한 이상적인 사례이나, 실제로 모든 교원이 참여, 여러 차례의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과목 개발의 결실을 맺는 것은 그 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이상철·주철안, 2007).

경상남도 교육청의 경우 성격-목표-내용 체계-성취기준-교수·학습 방법-평가에 이르는 과목별 교육과정 항목들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다. 성격 항목에서는 과목의 필요성 및 역할, 역량을 제시하고 목표 항목에서는 해당 과목의 학습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능력을 포함하여 학습의 도달점을 제시한다. 다음 내용 체계는 학습의 내용 범위와 수준을 나타내는 단계로, 과목의 학습을 통해 궁극적으로 내면화, 자기맥락화해야 할 아이디어이자 교과와 기본 개념들의 집합인 핵심 아이디어를 진술하고 내용 요소를 도출한다. 영역별 내용 요소를 학습한 결과 학생이 알거나(지식·개념) 할 수 있기(과정·기능)를 기대하는 도달점으로서의 성취기준을 작성한 후, 과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의 강조점 및 평가 방법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들은 학교와 교사가 주체가 되어 개발하는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육과정이라기 보다는 교과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개발 절차에 해당한다.

요약하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시한 개발 절차는 하나의 사례에 따른 것으로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개발 절차는 일반적이고 탈맥락적인 교과 교육과정 개발 절차로, 학교나 교사 맥락에서 적용하는 데에는 추가적인 안내가 요구된다.

나. 유형별 과목 예시

본 연구에서 조사한 여섯 교육청 안내 자료에서 모두 유형별 과목을 예시하고 있었다. 충청북도, 서울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과목당 반 페이지 정도로 비교적 간단하게 제시한 반면, 울산시, 경상남도,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의 체계를 갖추어 자세히 예시하고 있었다. 지역별로 제시한 학교자율시간 개발 과목 유형 구분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6〉 지역별 학교자율시간 개발 과목 유형

유형	충북	서울	경기도	울산	경남	전북	계
교과 통합형	○	○	○	○	○		5
심화 보충형		○	○	○			3
기초 소양형		○			○	○	3
학교 특색형		○			○		2
지역 연계형		○	○	○	○	○	5
진로 연계형	○	○	○	○	○		5
창체 연계형	○		○				2
학생 주도형			○				1

지역별 학교자율시간 안내 자료에 제시한 과목의 유형은 주로 4~6가지였으나, 충청북도와 전라북도와 같이 두세 가지의 유형을 예시한 지역도 있었다. 충청북도는 타 지역에 비해 가장 간단하게 나타낸 데 비해, 전라북도는 교육과정의 구성 영역을 모두 갖추고 있는 형태로 개발되어 있었다. 본 절에서는 가장 많이 예시된 유형인 교과 통합형, 지역 연계형, 진로 연계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7〉 교과 통합형 과목의 예

지역	과목명	관련 교과	시수 확보 방안	특징
충북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환경	도덕(17)+사회(16)	○다교과 집중형으로 운영
서울	고전 문학 속 사회 살펴보기 고전 문학 속 음악 살펴보기	국어, 사회, 음악, 선택(교양)	A교과(17)+학기별 B교과/C교과(각 16)	

지역	과목명	관련 교과	시수 확보 방안	특징
경기도	과학 기술 발전과 윤리 미디어 리터러시 공동 탐구 디지털 리터러시 공동 탐구		A교과(16)+B교과(17)	○학년별 과목 설계 중점 사안 제시
울산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선택(교양)	수학(3)+과학(4)+도덕 (4)+사회(6)+국어(6)+ 기가(6)+창체(4)	○차시별 수업 주제 및 세 부 활동 내용 제시 ○평가 계획과 학생생활기 록부 기재 예시
경남	생활 속의 수학	수학	수학(17)+국어(17)	○차시별 교수·학습 계획 ○내용 체계, 성취기준, 평 가 방안 제시
	도시와 생활	사회, 도덕	사회(17)+도덕(17)	

충북에서는 학년별로 유형별 과목을 예시하였고, 그 중 교과통합형 교과인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은 1학년 대상으로 환경 교과로 편성하였다. 시수는 도덕과 사회를 감축하여 학교자율시간으로 편성하였고, 한 주에 집중적으로 국어, 사회, 도덕, 과학, 미술, 기가, 정보, 체육, 음악, 진로와 직업 등의 다양한 교과 수업에서 주제를 다루도록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동일 유형에 관하여 학년별, 학기별로 과목을 계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과목명만 제시하고 별도의 내용은 없는 데 반해, 학년별 과목 설계의 초점을 나타내고 있다. 지침에서는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는 것으로, 구체적인 과목 편성과 참여 교사, 절차 등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어야 가독성과 유용성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에서는 과목의 성격과 목표, 편성 교과(군), 시수 확보 방안, 세부 운영 계획, 내용 구성안, 평가 계획 등 비교적 상세한 과목 예시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중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는 인공지능 기술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인공지능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 진로를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둔 과목으로, 수학, 과학, 도덕, 사회, 국어, 기가 등 여러 교과의 시수를 조정하여 시수를 확보하고, 선택 교과(군)에 편성, 이수 여부를 평가한다. 과목의 내용은 AI의 이해와 미래 변화에 초점을 둔다.

경남의 ‘생활 속의 수학’은 3학년 2학기 개설 과목으로, 수학과 국어를 통해 시수를 확보, 수학 교과로 편성된다. 경남에서는 예시 과목마다 차시별 교수·학습 계획을 안내하고 있으며,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 역시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경남의 사례와 같이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을 함께 제시하면 학교와 교사의 활용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표 8〉 지역 연계형 과목의 예

지역	과목명	관련 교과	시수 확보 방안	특징
서울	우리 지역의 문화 탐방	선택 (교양)	A교과(4)+B교과(4)+C교과(4)+D교과(4)+E교과(4)+F교과(5)+창체 (8)	
경기도	지역사회 이해와 자원탐색 지역사회 체인지 메이커 지역사회 직업 지도 제작		자율·자치(10)+A교과(4)+B교과(4)+C교과(4)+D교과(3)+E교과(3)+F교과(3)+G교과(2)	○학년별 과목 설계 중점 사안 제시
	문학창의도시 외국영화창의도시 과학창의도시 지리창의도시	국어 영어 과학 사회		○무학년제 학생주도 프로젝트로 운영 ○자유학기화 연계
울산	지역사회이해	사회(역사 포함)/도덕	사회(17)+도덕(16)	○차시별 수업 주제 및 세부 활동 내용 제시 ○평가 계획과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경남	창원의 현재와 미래	선택 (교양)	창체(17)+국어(3)+역사(2)+수학(3)+과학(3)+가·가(2)+영어(3)	○차시별 교수·학습 계획 ○내용 체계, 성취기준, 평가 방안 제시
	우리 경남 다시보기	선택 (교양)	창체(17)+사회(역사 포함)/도덕, 국어, 가·가(17)	
전북	지역과 시민: 꽃심 전주			○내용 체계, 성취기준, 평가 방안 제시

경기도는 각 학년별 조정 교과(군)는 학년에 편성되어 있는 교과(군)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교과(군)의 편성을 안내하고 있지는 않다. 무학년제 과목의 경우, 학생 주도 프로젝트로, 1학년 자유학기, 2, 3학년 학교자율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최대한 모든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 1인당 최소 인원 배정을 권장하고 있다. 최소 인원을 제시하는 방식은 학교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교사 간 협의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과정과 절차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울산의 ‘지역사회이해’는 지역의 역사, 지리, 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쟁점과 문제점을 분석, 해결 방안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과목으로, 사회와 도덕으로 시수를 확보하고 사회(역사 포함)/도덕 교과(군)으로 편성하여 5단계 성취도 평가 방식을 취한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이해와 우리 지역 문제 해결, 우리 지역 창업 프로젝트 등 세 가지로 운영된다. 전북은 교육감 승인 과목(고시 외 과목) 교육과정인 ‘지역과 시민: 꽃심 전주’을 지역

연계형 신설과목의 예시로 과목 교육과정 전체를 안내하고 있었다.

〈표 9〉 진로 연계형 과목의 예

지역	과목명	관련 교과	시수 확보 방안	특징
충북	정보와 진로	정보	정보(34)	○단일 교과 지속형으로 운영
서울	진로 탐구 독서	선택 (교양)	A교과(6)+B교과(6)+C교과(6)+D교과(6)+E교과(5)+F교과(5)	○1학년 개설 과목
	진로 진학과 고등학교 미리보기		A교과(5)+B교과(5)+C교과(5)+D교과(5)+E교과(5)+창체(8)	○3학년 개설 과목
	진로 진학과 고교학점제 미리보기		A교과(5)+B교과(5)+C교과(5)+D교과(5)+E교과(5)+창체(8)	
경기도	인문사회와 진로 자연과학과 진로 미래 사회와 진로		A교과(11)+B교과(12)+C교과(10)	○다양한 직업군 탐색하고 체험하는 내용으로 설계
	진로 독서 진학과 진로 진로 진학과 고교학점제		창체 진로(10)+A교과(4)+B교과(4)+C교과(4)+D교과(3)+E교과(3)+F교과(3)+G교과(2)	○학년별 과목 설계 중점 사안 제시
울산	진로체험과 포트폴리오	선택	국어(4)+역사(3)+도덕(2)+수학(4)+과학(4)+영어(4)+진로와직업(3)+창체(10)	○혼합형으로 운영 ○차시별 수업 주제 및 세부 활동 내용 제시 ○평가 계획과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경남	나의 다짐, 나의 미래	선택	진로와직업(17)+창체(16)	○차시별 교수-학습 계획 ○내용 체계, 성취기준, 평가 방안 제시
	자아 정체성 형성과 진로	선택	진로와직업(17)+국/영/사/수/과(14)+창체(2)	
	진로 진학과 고교학점제	선택	진로와직업(17)+국(3)영(4)사(3)수(3)과(4)	

충북에서는 정보 교과 34시수를 순증, ‘정보와 진로’ 과목을 신설하여 1주일에 2차시씩 지속형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울산의 ‘진로체험과 포트폴리오’는 직업 유형별 체험 활동을 통해 포트폴리오로 작성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과목이며, 국어, 역사, 도덕, 수학, 과학, 영어, 진로와 직업 등 다양한 과목으로 시수를 확보하고 선택 교과로 편성하여 평가는 P/F로 하게 된다.

경남의 ‘나의 다짐, 나의 미래’는 진로와 직업, 창체를 통해 시수를 확보, 선택 교과(군)으로

편성하며, 지속형과 학기말 집중형을 합한 혼합형으로 운영한다. 총 33차시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계획과 과목의 성격과 목표, 내용 체계, 성취기준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 3. 개발 과목 승인 신청

학교에서 개발 선택 과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교육부, 2022a). 따라서 개발한 과목의 승인 신청 절차는 반드시 안내되어야 한다. ‘분석 코드 5’에 해당하는 ‘학교장 개설 과목 승인 신청 안내’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지역 교육청은 충북, 서울, 경남, 전북 등 4곳이 있었고, ‘과목 승인 신청서 양식’은 모든 지역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충청북도와 서울시는 학교에서 개발 및 신설하는 과목에 대한 근거 및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교과 교육과정 개요’에 대한 양식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신설 과목에 대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교과목 사용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정 도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학생용 워크북을 제출해야 한다(전라북도 교육청, 2024: 31). 경상남도는 고시 과목과 고시 외 과목, 교과목 신설 승인 신청과 교과목 사용 승인 신청, 인정 도서 개발 승인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경상남도 교육청, 2024: 121), 교과목을 신설하는 경우와 타 시·도 및 타 학교의 승인 과목을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승인 신청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교과목을 신설하는 경우 사용할 ‘교과용 도서에 대한 심의’ 요청과 ‘교과목 신설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기존 개설 과목을 사용하는 경우 ‘교과목 사용 승인’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경상남도 교육청 2024: 122-123).

경기도와 울산은 승인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는 않으나 경기도의 경우 ‘학교장 개설 과목 승인 신청서’ 양식을, 울산의 경우 ‘교과목 신설 승인 신청서’와 ‘인정도서 인정 신청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교육부, 2022a), 각 지역에서는 과목 개설을 위한 시·도별 지침과 절차를 명료하고 가독성 높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 4. 기존 개설 과목 중 선정

학생의 요구 및 학교의 상황에 따라 학교자율시간에서 활용할 선택 과목을 자체 개발하지 않고 타 시·도나 타 학교에서 개발한 과목 중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기존에 개설된 고시 외

과목 목록을 학교와 교사에 안내할 필요가 있다. 기존 개설 과목 목록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은 충청북도와 서울, 경기도였다. 그 중 충청북도는 타 시도 개설 과목 목록과 함께 고시 외 과목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함께 제시하고 있었고,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교육감 승인 과목 목록과 개발 중인 과목의 목록을 제공하고 있었다.

## 5.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

‘분석코드 7’에 해당하는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에 관한 내용은 모든 지역 교육청에서 안내하고 있었다. 학교자율시간은 한 학기에 1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해야 하며, 3개월 가운 데 최소 한 학기를 편성해야 한다. 학교자율시간의 시수는 교과(군)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20% 범위에서 증감하되, 예술, 체육 교과의 기준 시수 확보, 정보 시수 68시간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학교자율시간에서 운영하는 선택 과목은 관련 교과로 편성한다.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식을 지속형, 집중형, 혼합형으로 제시한 점은 모든 지역이 동일하였다. 지속형은 기초 시간표에 학교자율시간 과목을 포함하여 매주 정기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이고, 집중형은 학기 중 일주일 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며, 혼합형은 일정 기간 지속형으로, 학기말에 집중형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운영 방식에 따른 장·단점은 아래의 표와 같다(충청북도 교육청, 2024: 11).

〈표 10〉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식 비교

운영 방식	특징	장점	단점
지속형	○ 매주 학교자율시간 배정	○ 안정성과 내실화 확보 ○ 일관되고 지속적인 교육	○ 담당 교사 배정 및 지도 부담 증가 ○ 다교과 조정시 7교시 증가 ○ 단일교과 조정시 20% 증감 고려
집중형	○ 학기초, 학기중, 학기말 집중적으로 운영	○ 학교 상황에 적합한 시간 활용 가능 ○ 지속형에 비해 교사의 부담 상대적 완화	○ 총괄 부서 및 특정 과목 담당자의 부담 ○ 위계가 있는 과목은 편성 유의 ○ 일회성 이벤트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
혼합형	○ 지속형과 집중형의 혼합 ○ 일정 기간 지속형으로 운영한 후 학기말에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	○ 지속형과 집중형의 장·단점 혼합	

다만, 학교자율시간의 편성 방안, 시기 및 내용은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하며, 지역과 연계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편성·운영한다.

## 6. 교재 선정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경상남도에서는 학교자율시간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방법과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학교자율시간은 ‘과목’으로 운영되므로, 기존 교과서의 구성을 참고하여 교수·학습 자료를 구성하되, 교과서에 비해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다.



[그림 4] 교수·학습 자료 개발 단계(경상남도 교육청, 2024: 34)

먼저, 교수·학습 자료의 전체적인 구성 영역을 정한 후, 자료를 수집한다. 자료는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헌 및 누리집, 연수, 연구회 등 다양한 원천을 통해 수집하고, 타당성, 객관성, 신뢰성의 확보와 저작권의 준수에 유의한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자료의 제작에 들어가며, 이 때 참여 교원 간 협의를 통해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한다. 자료의 제작이 일차적으로 완료되면 수정 및 검토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실사용을 통해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반복하게 된다.

전라북도의 경우 학교자율시간 선택과목 인정도서 승인 검토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전라북도 교육청, 2024: 37). 헌법 정신과의 일치 여부, 교육의 중립성 유지 여부, 지식 재산권 존중 여부와 관련된 8개의 문항을 통해 인정도서를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신청서 양식은 없었다. 울산의 경우 인정도서의 인정 신청서 양식과 함께 교수·학습 자료 검토 위원회의 검토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검토 문항은 전라북도의 그것과 대동소이하였다.

충북에서는 고시 외 과목을 위한 인정 도서 사용과 관련하여 인정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었다. 교육감 인정도서를 사용하는 경우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승인 검토 내용 및 신청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승인 검토 내용은 전라북도, 울산의 검토 내용과 동일하였다. 실험, 실기·실습, 관찰 등 체험 및 탐구 활동 중심의 과목의 경우 ‘인정도서 없는 신설과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교수·학습 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수업에서 사용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었다.

서울시에서는 연구학교의 사례를 통해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으나 인정도서의 사용에 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나 신청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경기도 역시 인정도서의 승인과 사용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학교자율시간에 운영하는 고시 외 선택 과목의 교수·학습에 사용하는 교재와 자료에 대한 규정을 학교와 교사에 상세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인정도서의 사용 승인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명료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 7. 개설 과목의 평가 및 기록

학교자율시간 개설 과목에 대한 평가와 기록에 대해 별도로 안내한 지역은 서울과 전라북도였다. 서울시의 안내 자료에서는 학교자율시간 개설 과목은 편성된 교과(군)의 평가 방식에 준하여 실시하되, 지필 혹은 수행 평가 여부는 학교에서 결정하며,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및 기재 예시를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다(서울시 교육청, 2023: 17). 전라북도는 학교자율시간의 평가와 기록에 대해 1쪽에 걸쳐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전라북도 교육청, 2024: 27). 학교자율시간의 개설 과목은 관련된 교과(군)으로 편성하고, 편성된 교과(군)의 평가 방식에 준하여 실시하고, 학생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입력함을 안내하고 있다.

서울과 전라북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학교자율시간 개설 과목에 대한 평가와 기록에 대한 안내를 찾아볼 수 없었다. 교과목 학습의 평가와 기록에 대한 세부 지침은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적 관리 지침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교자율시간 개설 과목의 평가와 기록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각 시·도별로 명료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8. 의사결정 과정 전반

지역별 안내 자료에서 학교 현장에서 학교자율시간과 관련한 의사결정 전반에 관한 로드맵을 예시한 지역은 서울, 경기도, 울산이 있었다. 서울은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준비 단계를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있었고, 경기도와 울산은 차년도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학교의 준비를 비롯하여 운영 과정에서 실시해야 할 사항들을 함께 제시하고 있었다(경기도 교육청, 2024: 31-32; 서울시 교육청, 2023: 25-26; 울산시 교육청, 2024: 18).

〈표 11〉 지역별 로드맵 중점 사항 비교

시기		중점 운영 사항		
		서울시	경기도	울산시
전년도	5-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2 개정 교육과정 및 학교자율시간 연수</li> <li>○교원학습공동체 등 학교 내 교육과정 연구 협의체 구성</li> <li>○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li> <li>○신설과목 승인 신청(8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자율시간 T/F 구성 및 운영 준비</li> <li>○2022 개정 교육과정 및 학교자율시간 연수</li> <li>○교육공동체 대상 의견 수렴 및 과목 결정</li> </ul>
	9-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입생 교육과정 편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2 개정 교육과정 및 학교자율시간 연수</li> <li>○학교자율시간 과목 선정을 위한 교육공동체 토론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입생 교육과정 편성</li> <li>○교사 연수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li> </ul>
해당년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자율시간 학습자료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 학부모 대상 학교자율시간 이해 연수</li> <li>○교과목 신청 준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입생 학교교육과정편성(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li> </ul>
	3-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설과목 승인 신청(3월)</li> <li>○학교자율시간 운영</li> <li>○학교자율시간 과목 평가 및 기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입생 교육과정 편성</li> <li>○학교자율시간 운영 교과목 선정</li> <li>○학교자율시간 과목 개설 승인 신청(7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자율시간 교과목 신청(5월)</li> <li>○학교자율시간 선택 과목 운영 및 점검</li> <li>○학교자율시간 과목에 대한 평가와 기록</li> </ul>
차년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과별 평가 계획 수립</li> <li>○학교자율시간 교과목 신청 준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자율시간에 대한 교원 및 학생 만족도 조사</li> <li>○학교자율시간 운영에 대한 보완 계획 수립</li> </ul>

## V. 학교자율시간 안내 자료 개선 방안

지역 교육청에서는 국가 수준의 지침을 학교가 처한 교육적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때 지역에서 안내하는 자료는 명료성, 가독성, 유용성을 갖추어야 하며,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개발과 생성

을 구현하는 학교자율시간에 관한 지역별 안내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학교자율시간 안내 자료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에서 수행되는 학교자율시간에 관한 의사결정의 모든 단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학교자율시간 의사결정 단계에 따르면,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토대 형성(분석코드1)’ 이후 ‘가용 자원(분석코드 2)’을 확인하는데 안내 자료에 이 단계가 포함된 지역은 한 군데도 없었다. 2022 개정 국가 교육과정 총론의 학교자율시간 지침에 따르면 ‘지역과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소개하거나 학교의 자원을 확인하는 단계인 두 번째 단계에 대한 설명은 전무하였고, 학생의 필요와 요구를 조사하는 과정을 안내하거나 설문지를 예시한 지역은 충북, 서울, 경남 세 곳에 불과하였다. 지역 교육청의 역할과 지역에서 발행·배포하는 안내 자료의 성격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는 지침을 명료하고 가독성 있게 전달하여 학교에 유용성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교자율시간 안내 자료는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학교자율시간에 운영한 선택 과목에 대한 평가와 기록(분석코드 9)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서울과 전북 두 지역이었다. 평가와 기록에 관해서는 시·도별 학업관리 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여지가 적고 명료성이 강조된다. 많은 지역에서 예시 과목을 ‘선택’의 하위에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로 선택 과목은 P/F로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평가의 내용과 방법이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는 바(홍후조, 2016), 평가와 기록에 관한 분명한 지침 안내는 학교자율시간의 원활한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와 교사의 정책 이해도와 준비도가 부족하고 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한진호, 2024) 구체적인 안내 없이 학교의 자율성에 맡기게 된다면 교육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자율시간 선택 과목의 개발 및 선정에 관한 자세한 절차와 설명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국가 수준의 일괄적 교육과정에 비해 지역화, 자율화된 교육과정은 지역별 교육력의 차이에 따른 교육의 질적 격차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으며(김미진, 2024), 교육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과정 개발 역량과 교사의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학교의 교육과정 개발 역량과 교사의 전문성을 계발하기 위하여 지역 교육청에서는 과목별 교육과정 개발의 단계와 절차, 단계별 이행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선택 과목 개발 절차(분석코드 4)를 상세하게 안내하거나 개발 사례를 제시한 지역은 서울과

경남 두 교육청이 있었고, 개설 과목의 유형별 예시는 모든 지역 교육청이 제시하고 있었다. 현재는 선택 과목을 실제적으로는 지역 수준에서 개발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학교의 과목별 교육과정 개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과목 개발의 개발 절차와 과정(분석코드 5)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선택 과목을 개발하지 않고 타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개설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이 기개설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기개설 과목의 목록(분석코드 6)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은 충북, 서울, 경기도가 있었고, 서울은 서울시 교육감 승인 과목 목록만을 제시하고 있었던 반면에, 충북과 경기도는 전국의 고시 외 과목 목록 및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학교자율시간은 결국 ‘과목’의 개설과 시수 편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학교에서 개설할 과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 교육청에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자 안내 자료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다.

특히 학교자율시간 연구학교의 사례에 따르면, 학교 개설 과목의 대부분은 정보 및 AI 관련 교육, 시민 교육, 생태 환경 교육, 진로 직업 교육 등으로 기존의 범교과 학습 주제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이주연, 2024). 따라서 정책이 의도하는 교육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선택 과목의 개발 절차 및 기개설 과목에 대한 정보를 접근성 높게 제공하여 교사들이 과목의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학교자율시간 개설 과목의 편성과 시수 배정에 관한 교원 협의의 필요성 및 내용, 절차 등이 자세히 안내될 필요가 있다. 선택 과목의 편성에는 학생의 필요와 요구뿐만 아니라, 교원의 협의 과정과 결과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교육과정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과목의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교원의 철학, 전공, 교육관 등은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학교자율시간 과목을 어떤 교과 하위에 편성하느냐에 대해 교원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교원 협의 과정의 필요성과 목적, 내용, 절차 등에 관한 적절한 안내 없이 학교에 일임한다면 교과목 편성에서 교육 목표에 대한 타당성보다 교원 간 위계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전문 학습 공동체와 같은 교원 협의체를 중심으로 학교자율시간 과목을 개발 및 선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이 역시 교원 협의를 안내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교원 협의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교원 협의체의 결정 사안들을 학교 교육과정 결정에 반영하고 이행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 풍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 교육청에서는 이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연수 계획, 예산 지원, 컨설팅, 온라인 플랫폼 확보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학교의 시스템이 교육과정 중심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의 교육과정 관리 시스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한진호, 2024). 현재의 교육과정 시스템은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이나 개선에 대한 융통성이 부족하다. 국가 중심의 일원화된 교육과정에서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이 반영된 교육과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추후 학교자율시간이 실천되는 과정에서 학교의 실제 운영 현황과 교육청 안내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지원 사항에 관한 교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 전반에서 교원의 참여가 일부 있긴 하였으나 학교자율시간에 관한 교원 의견에 관한 조사는 연구된 바 없다. 학교자율시간을 실천하는 주체는 교사이며, 교사의 전문성과 주도성, 적극성이 학교자율시간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적인 열쇠인 점을 감안하여 추후 지속적으로 교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역별 안내 자료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교자율시간을 통해 자율성의 발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은 옳은 방향이나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율성은 어디까지나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자율성이므로(김미진·홍후조, 2023) 학교나 학생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선택 과목의 확대 및 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학교에 부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적 자율성이라 생각하는 바이다.

※ 논문 투고일: 2024. 11. 2.    ※ 논문 수정일: 2025. 3. 19.    ※ 게재 확정일: 2025. 3. 21.

## 〈참고문헌〉

- 경상남도 교육청(2024).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운영 길라잡이**.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교육인적자원부(2007. 4. 15). **학교자율화 계획 발표**. 보도자료.
- 교육부(202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시안**. 국민소통채널 탑재용.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22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22b).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중학교**. 교육부.
- 김미진(2024). IB PYP 관계자 면담을 통한 학교 교육 개선 방안 탐색. **미래교육연구**, 14(2), 65-91.
- 김미진, 김택희(2024). 지역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미출간논문.
- 김미진, 박상우(2023). AI 교육의 교과 교육과정 반영 양상: AI 교육 선도학교 중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41(4), 29-54.
- 김미진, 홍후조(2023).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실행 방안 탐색. **교육학연구**, 61(5), 63-94.
- 김세영, 이윤미(2020). 학교교과목 개발 절차에 관한 사례 연구. **교육과정연구**, 38(3), 7-32.
- 김재복(1996). **현행 교육과정의 분석 평가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평국(2009).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과 내용 지역화 실태와 그 활성화 방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논총**, 29, 111-145.
- 박순경(2003). 국가 교육과정 적용에서의 교육과정 지역화의 실효성 논의-시·도교육청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연구·개발 과업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1(1), 111-127.
- 박순경(2010). 교육과정 ‘지역화’의 흐름과 자리매김. **교육과정연구**, 28(3), 85-105.
- 서울시 교육청(2023). **2022 개정 교육과정 대비 학교자율시간 운영·지원 도움자료**. 서울특별시 교육청.
- 울산광역시 교육청(2024). **2024학년도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운영 도움자료**. 울산광역시 교육청.
- 이병호(2009).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 체제 개선방안. **교육과정연구**, 27(4), 21-45.
- 이상철, 주철안(2007). 중학교 교사의 동료교사에 대한 갈등관리 유형의 실증적 분류 및 활용경향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4(3), 25-50.
- 이승미(2013). 교육과정 자율화에 따른 교육과정 문서 체제의 개선 방향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19(3), 77-97.
- 이승미(2024). 학교 교육과정 설계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역할 개선 방향 탐색-제도적 측면에 대한 초·중등학교 교육 현장의 요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42(2), 169-192.
- 이승미, 이병천, 이수정, 조기희, 허예지, 오수정, 방은희(2021). **교육 자치에 따른 지역과 학교 수준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설계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탐색**. 연구보고 RRC 2021-4-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주연(2024).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사례 연구. **교육과정연구**, 42(3), 25-50.
- 전라북도 교육청(2024).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 참고자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충청북도 교육청(2024).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학교자율시간 운영 매뉴얼**. 충청북도교육청.

- 한진호(2024). 교육과정 자율화의 교육적 의의에 따른 학교자율시간의 쟁점과 과제. **교육과정 연구**, 42(4), 29-56.
- 홍후조(2016). **알기쉬운 교육과정**, 제2판. 학지사.

〈Abstract〉

---

## Analysis and Exploration of Improvement Strategies for Regional School Autonomy Time Guidelines

---

Kim, Mi-Jin<sup>1</sup>, Ji, Hye-Yeong<sup>2</sup>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school autonomy hours" were newly introduced, allowing individual schools to develop and offer elective courses. Regional offices of education have been providing guidance materials on these autonomy hours. From the perspective that regional education offices should support and guide school curricula, an analysis framework was developed based on the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es related to school autonomy hours in schools. This framework was used to analyze guidance materials from six different reg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at certain elements, such as the foundation of school autonomy hours, organization and operation, and course application forms, were commonly present across all regions. However, essential guidance elements such as identifying available resources, assessment and record-keeping, and the procedure for developing elective courses were sometimes missing.

Based on the findings,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first, guidance should cover all stages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lated to school autonomy hours. Second, detailed procedures and explanations for the development and selection of elective courses should be included. Third, support for teacher collaboration regarding the organization and allocation of hours for courses offered during school autonomy hours is necessary. Last, continuous surveys and reflection on the actual operation of schools and the opinions of teachers are required for ongoing improvement.

**Keywords** : School autonomy time, Guidelines for school autonomy time, Regional curriculum, Localization of the curriculum, Curriculum autonomy

---

1. Adjunct Professor, Daegu University, 0123kimm@gmail.com (Lead Author)

2. Research Professor, Korea University Institute of Educational Research, yeong@korea.ac.kr  
(Corresponding Author)